



1100고지 찾은 관광객들 15일 한라산 1100고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눈 쌓인 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공은 국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하반기 제주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확대
우도선 태양광·풍력 등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정부가 올해 제주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돼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이다.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 등에 거래하는 통합발전소(VPP)제도 등을 실증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약 완화 등 전력계통 불안정 해소와 신산업 발굴에 따른 고용창출·전기로 절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지능형전력

망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능형전력망은 ICT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신·통신 제어 등의 양방향 운영을 통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하는 전력망이다.

산자부는 제주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우선 지정해 지역내 에너지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도내 전체 전력수요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진행하고 한국형 통합발전소(VPP)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VPP는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에 입찰하는 ICT 기반 가상발전소다.

또 제주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급전 가능 자원으로 등록·전력 도매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이후 2025년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력생산 원가가 높아서 전력시장 가격이 높을 때 실시간 시장에서 전력거래소가 발전 사업자와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 사이에 운영하는 시장에서 입찰이 이뤄진다.

아울러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플러스 DR(수요반응)’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132회·2만8853MWh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플러스 DR’은 재생전력 초과공급시 ‘플러스 DR’이 발령되면 전기소비가 자발적으로 전기사용량을 늘리고 수요증대량에 대해 시장 정산금(SMP)을 보상받는 제도이다.

신재생 발전량이 초과할때 전기를 사용하면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SMP를 전력시장 가격으로 받는 것을 안 받고 그 전기를 써준 사람한테 주는 것이다.

산자부는 우도에서 태양광과 풍력, ESS 등 다양한 공급 수요자원 구성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설계 및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제주도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의 약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낮 시간 같은 경우는 풍력, 태양광이 넘치니까 이 넘치는 것을 대용량저장장치나 또는 전력시장가격, 계시별 요금제를 통해 전력 수요를 유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그기자 bigroa@ihalla.com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 제동

장애아 가정 부담 가중
제주시, 서비스 단가 관리

속보=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단가가 크게 올라 장애아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본보 2월 2-3일자 보도)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 기관 지정 단계부터 단가 인상을 억제할 ‘장치’를 두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대상 아동은 언어, 감각·운동 등 다양한 영역의 재활치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원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금이 인상된 시기에 맞춰 도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제주시 33곳, 서귀포 11곳)이 서비스 단가를 올리며 불거졌다. 이들 대부분이 재활서비스 1회당 단가를 최대 6만2500원(월 지원금으로 4회 서비스 제공)까지 동 일하게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서비스 단가 기준을 주

2회씩, 월 8회(1회당 3만1250원)로 삼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데다 정부의 지원금 인상 효과도 무 의미하게 하면서 장애아 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그런데도 행정예선 서비스 기관 지정 이후에는 단가 인상을 제재할 방안이 없다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시는 15일 “서비스 단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비스 기관 지정 단계부터 단가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운영 지침’에는 정부는 시·군·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과 전년도 바우처 가격, 제공 인력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해 적정 단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을 근거로 서비스 기관을 새로 공모·지정할 때 서비스 횟수와 가격 조정을 제한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단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을 강화해 시장가격 ‘조정권’을 가진다는 구상이다. 제주시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 서비스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오는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아동친화도시 조성 5대전략 수립·추진

도, 전략 14개 과제·68개 세부과제 444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아동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4개 중점과제·68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5대 추진 전략은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생활이 즐거운 놀이·문화 환경 조성,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안전한 보호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아동친화

도시 기반구축으로 정했다. 제주도는 14개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총 44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안전한 보호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폭력·학대·방임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20개 세부과제도 추진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5분도시’ 시범지구 어디?... 3면 /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 4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제주 최고의 인재를 최고의 대우로 모십니다

호텔 프론트 데스크부터 10여개의 고급 레스토랑 & 바, 웰드클래스 카지노, K-패션 쇼핑몰 등 국내 초일류 관광시설들이 집약해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 그랜드 하얏트 제주 /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제주 최고의 호텔리어, 셰프, 딜러, 마케팅, 재무, 총무, 시큐리티, 스파 테라피스트, 기계설비 엔지니어 등을 최고의 대우로 모십니다. 또한 드림타워에서 함께 드림팀으로 일할 사회 초년생들을 모십니다. 모두 잡콘서트에 오셔서 직접 웰드클래스 시설들을 견학해보고 맛있는 음식도 드셔 보시고, 드림타워를 이끄는 드림팀과의 커리어 토크를 통해 나의 진로를 결정하세요

잡콘서트 · 일시: 2월 19일(일)~21일(화) / 4pm~9pm · 장소: 제주 드림타워 4층 이벤트룸
전화 문의 064-795-6359, 6335 / 010-7470-4529 (9am~6pm)

객실	식음&조리	카지노	통합지원	협력업체	
프론트 데스크 클럽라운지 스파(바디, 풋 테라피스트) 수영장 / 피트니스 하우스 키핑 세탁실 콜센터(서울)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라운지 제과제빵 룸서비스 이벤트	주방장 부주방장 사원 업장 매니저 웨이터, 웨이트레스 바텐더 바리스타	서베일런스 케이지 카지노재경 딜러 핏 슈퍼바이저 카지노마케팅 카지노보안	세일즈 마케팅 그래픽 디자인 재경 구매 IT 보안 안전관리	미성업프로(설비) · 전기 · 기계 · 소방 · 건축 유엔에스코리아 · 보안

* 직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잡코리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Job Concert
면접 지원하기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GRAND | HYATT